

書 評

林毅夫·蔡昉·李周, 『中國的奇迹發展戰略與經濟改革』, 上海三聯書店·上海人民出版社, 1994

林毅夫·蔡昉·李周, 『充分信息與國有企業改革』, 上海三聯書店·上海人民出版社, 1997

중국의 경제개혁과 경제발전전략의 전환, 공평한 시장경쟁환경과 국유기업개혁

한동훈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초빙교원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1978년말에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1979년-1995년 기간에 중국의 GDP는 연평균 9.8%의 속도로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고, 시장을 위주로 하는 자원배분제도로의 漸進的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었다. 반면에 소유제의 사유화, 경제질서의 민주화, 자원배분방식의 시장화를 그 주요내용으로 하는 急進的 경제개혁정책을 실시한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은 고율의 인플레이와 경제성장의 후퇴를 경험하였다. 중국과 구소련·동유럽사회주의국가간에 이렇게 경제개혁의 성과가 확연히 다른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를 실시하던 국가들의 개혁성과의 차이를 經濟體制移行(transition)방식의 차이에서 찾는 체제이행논쟁의 중심주제이다. 『중국의 기적』에서 저자는 중국의 개혁성공요인을 개혁의 점진성에서 찾고 더 나아가 이러한 급진적 개혁방식과 비교한 점진적 개혁방식의 우월성은, 중국이 경제개혁을 시작할 당시의 초기조건이 구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보다 유리했다고 하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체제이행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나라에 대해 일반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경제개혁 이전의 경제체제를 구성하는 제도안배(institutional arrangement)들은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하나의 제도안배의 변화가 경제체제를 구성하는 다른 제도안배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초래하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중국이 점진적 개혁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오게 된 요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안배들은 궁극적으로는 개혁이전 중국이 채택한 특정한 경제발전전략목표의 수행을 위하여 內生的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경제개혁을 더욱 철저히 진전시키고 현재 경제개혁과정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의 개혁과 더 나아가 과거의 경제발전전략의 근본적 폐기가 요구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대체로 네 가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첫째는 왜 개혁이전에는 경제발전이 완만하였고 개혁이후에는 경제성장이 빨랐는가 하는 물음이다. 둘째는 왜 개혁과정에서 '활력과 혼란 사이의 순환'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물음이다. 셋째는 향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가능한가 하는 물음이다. 넷째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경제개혁의 성과에 차이가 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저자는 개혁이전 경제체제의 형성과정에서부터 분석을 시작한다. 저자는 경제개혁 이전의 전통적 경제체제를 가격왜곡적 거시정책, 계획적 자원배분제도, 자율성 없는 미시경영메카니즘 등 제도안배의 삼위일체적 결합으로 파악한다. 그런데 저자는 이러한 경제체제가 형성되게 된 논리적 출발점은 중공업우선성장전략이라고 주장한다. 이 전략은 50년대에 신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첩경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중공업의 자본집약적 특징은 당시 자본이 부족하고 노동이 풍부한 중국의 자원부존조건과 서로 모순되었기 때문에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자원배분에 의존해서는 중공업우선발전전략을 추진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이자율, 환율, 에너지가격, 원재료가격, 임금, 생활필수품(농산물 등)가격 등을 인위적으로 억제하여 중공업의 발전을 위한 비용을 낮추는 것이 요구되었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가격왜곡적 거시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로를 통하여 자원이 배분되는 것이 필요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고도로 집중된 계획적 자원배분제도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기업잉여의 사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업에 대한 국유화를 실시하고 농촌에서 통일적 수매와 판매를 실시하기 위하여 농업의 인민공사화를 실시하여, 거시정책 및 자원배분제도에 부합하는 미시경영메카니즘이 형성되었다. 부연하면, 중국의 자원부존조건에 맞지 않아 比較優位를 무시하는 중공업우선발전전략의 채택으로 인하여 왜곡된 거시정책, 계획적 자원배분제도, 그리고 자율성 없는 미시경영메카니즘이 연이어 형성되었는데, 이러한 삼위일체의 전통적 경제체제는 내생적으로 형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적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위에서 언급한 첫 번째 물음 즉 왜 개혁이전에는 경제성장이 부진하고 개혁이후에는 경제성장이 빨랐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다. 전통적 경제체제의 가장 큰 폐단은 산업구조의 균형상실과 미시적 인센티브의 부족이었으며 그 결과 경제전체의 효율저하가 초래되었다고 한다. 개혁이후 경제성장이 빨랐던 이유에 대해 저자는 개혁이 어디에서부터 착수되었는가가 관건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중국은 경영자와 근로자의 미시적 인센티브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권한의 하향이양과 이익의 유보(放權讓利)'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전통적 경제체제의 문제점은 과거에도 인식되었고 그 해결이 시도되었지만 과거의 개혁조치는 정부부처간 혹은 지역간의 권한조정이라는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1978년 이후에 추진된 개혁은 권한조정이 정부와 기업의 관계에 이르렀고 더 나아가 거시정책의 개혁으로 개혁이 점진적으로 심화되어 나갔다는 데에 그 차이가 있다고 한다. 미시적 인센티브의 개선은 경제적 효율의 향상을 가져 왔는데, 새로운 자원의 증가와 비국유경제의 성장은 이에 상응하는

자원배분체도의 개혁을 촉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원배분체도에 있어 계획과 시장이 병존하는 이중메카니즘(雙軌制)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증가된 자원은 새로이 도입된 시장메카니즘을 통하여 전통적 전략하에서 성장이 억제되었던 노동집약적 부문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는데, 이는 왜곡된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 왔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개선과 경제적 효율의 개선은 경제성장을 촉진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두 번째와 세 번째 물음 즉 경제개혁과정에 활력과 혼란(병목현상, 인플레이션, 부패) 사이의 순환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와 지속적 경제성장의 가능성에 대해 저자는 거시정책의 개혁이 그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미시경영메카니즘과 자원배분체도의 개혁에 비해 거시정책의 개혁이 상대적으로 지체되었기 때문에 이들 상호간에 충돌이 발생하고 이때 정부가 개혁을 후퇴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경기가 급속히 냉각하고 다시 개혁을 진전시키면 경기가 과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거시정책의 개혁 특히 생산요소가격에 대한 개혁을 강화할 것과 궁극적으로는 중공업위주의 발전전략의 근본적 전환을 주장한다. 그 동안의 거시정책개혁을 거쳐 많은 부문에 대한 가격개혁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이자율, 에너지, 원재료, 교통 등 기반시설 등의 가격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체 경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에 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문에 대한 개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때 비교우위의 발휘에 따른 지속적 경제성이 가능하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네 번째 물음 즉 중국의 경제개혁이 여타국가들보다 나은 성과를 거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 저자는 漸進的 개혁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대답한다. 중국의 개혁은 전통적 경제체제 내부의 미시경영메카니즘의 개혁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며 이에 따라 자원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증가된 자원의 배분을 통해 자원배분체도의 개혁과 거시정책의 개혁이 촉진되었는데, 이는 개혁의 내재적 논리상의 순서성이 표출된 결과이다. 그리고 기존국유자산의 재배치에서부터 착수하지 않은 이러한 증량식개혁의 결과 대부분의 국민이 개혁의 수혜자가 되어 개혁에 대한 기득이익권자들의 저항을 피할 수 있었고 개혁이전상태로의 복귀를 거부하는 불가역성을 지니게 되었다. 또한 계획과 시장이 병존하는 쌍궤제라는 과도적 자원배분방식을 채택하고 계획가격이 시장균형가격수준에 접근하도록 부단히 조정되었기 때문에 단번에 가격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급진적 개혁에 따르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통적 경제체제를 경제발전전략으로부터 내생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는 저자의 이러한 관점은 대단히 독창적이고도 예리한 면이 있다. 과거 중국 뿐 아니라 사회주의제국은 거의 공통적으로 중공업우선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는 점은 거의 상식에 가까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왜곡된 거시정책과 계획적 자원배분제도, 그리고 자율성 없는 미시경영메카니즘이 과거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체제를 특징지우는 요소였다는 사실도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체제를 구성하는 이러한 제도들을 각

각 外生的으로 결정되거나 주어진 것 다시 말하면 따로따로 제도를 선택한 결과로 인식하여 왔고, 이에 따라 이러한 제도들간의 상호의존관계 혹은 整合性 그리고 경제발전전략과 경제체제간의 인과관계는 간과되어 왔다. 저자는 경제체제를 경제발전전략과 연관시킴으로써 경제체제를 구성하는 제도들의 내생성과 그들간의 내적 정합성을 파악해 낼 수 있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저자는 분산되어 존재하는 평이한 事實들을 하나의 줄로 꿰어낸 것이다.

또한 저자는 중국 경제체제개혁의 과정을 이렇게 상호의존적이고 내적인 정합성을 갖는 시스템의 논리적이고 순서성 있는 해체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시스템의 한 부분에 대한 개혁이 다른 부분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게 되는, 전통적 경제체제의 형성과는 정반대의 논리적 순서를 갖는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해체과정이 중국경제개혁의 특징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혁의 순서성인데, 미시경영메카니즘의 개혁을 통한 인센티브메카니즘의 개선에서부터 개혁을 착수했기 때문에 개혁이 성공으로 귀결되었고 반면에 구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국가들은 인센티브메카니즘의 개선에서부터 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유기업의 사유화와 자원배분제도의 시장화를 급격히 추진하였기 때문에 개혁이 실패하였다고 저자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상과 같은 경제체제전환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책의 전환과 나아가 경제발전전략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저자는 보고 있다.

『中國的奇迹(중국의 기적)』의 저자 3인이 저술한 또 하나의 저작 『充分信息與國有企業改革(정보충분성과 국유기업개혁)』은 『중국의 기적』에서 전개한 논리를 심화시켜 국유기업개혁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저작이다. 말하자면 『중국의 기적』의 국유기업관 후속작인 셈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국유기업의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의 문제를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고 국유기업문제의 해결책을 도출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자의 주장의 요체는 국유기업에 불리하게 되어 있는 상대가격구조를 개선하고 왜곡된 거시정책을 전환하며 국유기업의 역사적 부담을 청산하여 공평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제약의 硬化化(hard budget constraint)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기적』에서 저자는 개혁이전시기에 국유기업의 특수한 경영메카니즘은 자본이 부족한 자원부존조건하에서 중공업우선발전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인해 내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업의 소유자인 정부(엄밀하게 따지면 정부도 전국민의 위탁을 받은 것임)가 직접 국유기업을 경영할 수 없고 경영자에게 위탁하여 경영하며 또한 기업경영에 대한 정보가 소유자와 경영자에게 불균등하게 되는 상황하에서는 소유자의 이익과 경영자의 이익이 불일치하게 되는 주인-대리인문제(principal-agent problem)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기업외부의 경쟁적 시장에서 경쟁의 결과로서 결정되는 기업이윤이 당해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는 지표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외부적 통제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내부에 감독

메카니즘을 만들어서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억제하는 내부적 통제방법이다. 전자의 전형적인 예로서는 미국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서는 한국, 일본, 독일 등을 들 수 있겠다.

전통적인 계획경제체제하에서는 경쟁적인 시장이 부재하였고 따라서 기업경영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평가할 지표가 존재하지 않아 경영자에 의한 소유자권익의 침범을 막기 위해 기업에 대해 생산, 판매, 조달 등에 있어서의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는 기업경영메카니즘이 형성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기업경영메카니즘은 내생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70년대말에 시작한 국유기업개혁은 기업자주권의 확대와 인센티브증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저자가 『중국의 기적』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저자는 新著에서는 이에 이어서 국유기업의 문제를 깊이 해부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문제는 이러한 개혁조치에 의해 국유기업의 생산성은 증대된(물론 비국유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뒤쳐지지만) 반면 기업이윤이 감소하고 국유기업자산이 유출되는 소위 ‘생산성과 이윤율간의 모순’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첫째는 전통적 발전전략하에서 국유기업에 부과된 부담의 역사적 유산이라는 비용요인이 직접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이러한 역사적 부담으로 인하여 기업의 이윤이 경영성과를 반영하고 경영자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지표로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대리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의 연성계약이 점점 더 증대되고 경영자와 종업원에 의한 국유자산의 잠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따라서 저자는 기업에 대한 감독비용을 낮추어 효과적인 감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국유기업의 역사적 부담을 청산해 주고 거시정책의 전환을 통해 공평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이윤이라는 지표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계약의 硬化化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이자율을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거시정책을 전환하고 국유기업이 주로 공급하고 있는 원재료와 에너지, 교통운수서비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에 불리한 가격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경제개혁을 일보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거시정책의 전환과 궁극적으로는 중공업우선발전전략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중국의 기적』에서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연장하여 저자는 현재 중국정부가 국유기업개혁의 큰 방향으로 잡고 있는 ‘재산권의 명확화(淸晰產權)’를 비판한다. 저자에 따르면 주식제를 포함하여 기업에 법인자격을 부여하는 식의 개혁조치는 국유기업체제 형성에 있어서의 내생성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기업제도의 구축과정에서 국유자산의 유실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질적이고 시급한 과제는 재산권문제가 아니라 공평한 경쟁환경의 조성과 예산계약의 강화라고 한다. 왜냐하면 국유기업의 재산권은 국가에 있으며 경영권을 경영자에 위탁하였기 때문에 재산권은 본래

명확한 것이며, 만약 재산권의 명확화가 사유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경영자를 평가하는 시장메카니즘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사유화를 이룬 후에도 경영자에 의한 소유권의 침범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저자의 탁월한 분석에 대해 깊이 감명받았으며 상술한 저자의 의견의 대부분에 대해 공감한다. 중국이 국유기업개혁을 시작한 이래 기업권한과 인센티브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경영자의 자의적 행위(manAGERIAL discretion)를 제어하는 효과적인 감독메카니즘의 부재로 인하여 국유자산의 유실이 날로 확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기업의 주식제개혁과정에서 대규모의 국유자산유실이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저자는 탁월한 통찰력으로 예견하였는데, 실제로 본서가 출간되기 오래전에 저자는 이미 이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예측한 바 있다. 또한 전통적인 발전전략의 추진으로 인한 국유기업의 역사적 부담 즉 퇴직종업원의 연금, 企業辦社會로 일컬어지는 중업원에 대한 자금자족적 복리체제 등이 국유기업의 명에가 되어 국유기업적자의 원인이 되고 국유기업의 개혁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체 경제개혁에 대한 큰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중국정부가 기업복리의 시장화와 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보장을 전사회의 부담으로 전환시키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개혁의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국유기업의 역사적 부담을 청산하고 왜곡된 거시정책을 가일층 개선하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중국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수립도 알고 보면 경제개혁을 더욱 더 철저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경영자시장을 포함하는 다양한 시장의 성숙이 기본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자의 주장은 이러한 경영자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산권문제를 국유기업개혁문제의 중심에서 배제한 저자의 주장은 중국의 현실상황 가운데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였으며 논리적 비약의 오류를 범한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국유기업에 대한 소유권이 원칙적으로 전국민에게 있는데, 중앙정부는 전국민의 위탁을 받아 이를 관리하고 중앙정부는 다시 정부내의 특정한 기구에 그 관리를 위탁하고 그 기구는 다시 기업의 경영자에 그 관리를 위탁하는 다단계의 주인-대리인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주인-대리인관계의 다단계성과 자본주의사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주인-대리인관계 외에도 사회주의 국유기업에 있어서의 주인(principal)은 우리가 일반적인 주인-대리인관계이론에서 상정하는 주인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데 있다. 즉 대리인의 행위결과 즉 기업의 경영성과가 주인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주인은 대리인의 행위결과에 대한 평가와 이에 따른 대리인선정문제에서 廉價投票(cheap voting)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저자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중국의 국유자산관리체제인데, 정부와 기업의 미분리 및 정부내 여러 부문이 동시에 그 관리에 간여하는 多頭管理制의 문제점

이다. 중국은 국유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을 분리하고(政企分開) 이를 통해 기업에 진정한 자율경영권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이의 완전한 실현을 이루지 못하여 왔다. 따라서 주식제를 위주로 하는 기업의 법인화는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이루기 위한 제도상의 보장으로 인식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多頭管理制度로 인하여 정부의 어느 부문도 기업경영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없는 소유자부재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중국정부의 자산관리체제개혁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擬制所有者를 만들어 내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상술한 사회주의사회의 국유자산관리체제상의 특징과 이에 더하여 중국에 고유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저자의 주장은 타당성을 잃는다 하겠다. 왜냐하면 저자의 주장대로 기업의 경영성과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만약 이를 실행할 의욕을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주인(principal)이 부재하거나 혹은 주인내부의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의 효율적인 행사능력이 제약받는다면 결국 주인-대리인문제와 기업의 예산연성계약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의 견해는 결국 소유제개혁에 대한 반대의사로 확대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이는 국유기업에 대한 저자의 애착을 반영하는 것이며 결국 그 근원은 저자의 사상적 근거에까지 소급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두 권의 책은 상기한 3인의 공동저작인데, 이 3인은 거의 모든 저술을 함께 하는 트리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은 린이푸(林毅夫)인데, 그의 인생역정을 살펴보는 것이 그의 저작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대륙출신이 아니고 대만출신인데, 대만정치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金門島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던 중 해협을 헤엄쳐 건너 대륙으로 망명하였다. 그후 그는 북경대학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수학하던 중 특별강연차 북경대학을 방문한 시카고대학의 슈츠(Theodore W. Schultz)교수의 도움으로 渡美하여 시카고대학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마치게 된다. 박사과정을 마친 후 그는 예일대학의 교수직 제의를 뿌리치고 중국에 돌아와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農業司 副司長으로 일하였다. 그 후 그는 북경대학내에 중국경제연구센터를 세우고 현재 주임으로 재직하고 있다. 중국대륙으로 망명하기 전에 그는 이미 대만에서 十大傑出青年으로 선발된 전도가 유망한 젊은이였다. 대만에서의 이러한 유리한 조건과 예일대학의 제의를 마다하고 중국을 위해 일하기를 희망할 만큼 중국에 대한 그의 애정은 특별한 데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사상적 배경은 그의 학문적 성향을 상당부분 결정지은 것으로 보인다.

